



도립미술관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대.



배병우

허영만

여수시가 전남 도립미술관 유치에 나섰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도립미술관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유치위에는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시민사회단체와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여수 출신 ‘국민 만화가’ 허영만 화백과 배병우 사진작가 등 국내 대표 작가들이 도립미술관 건립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유치위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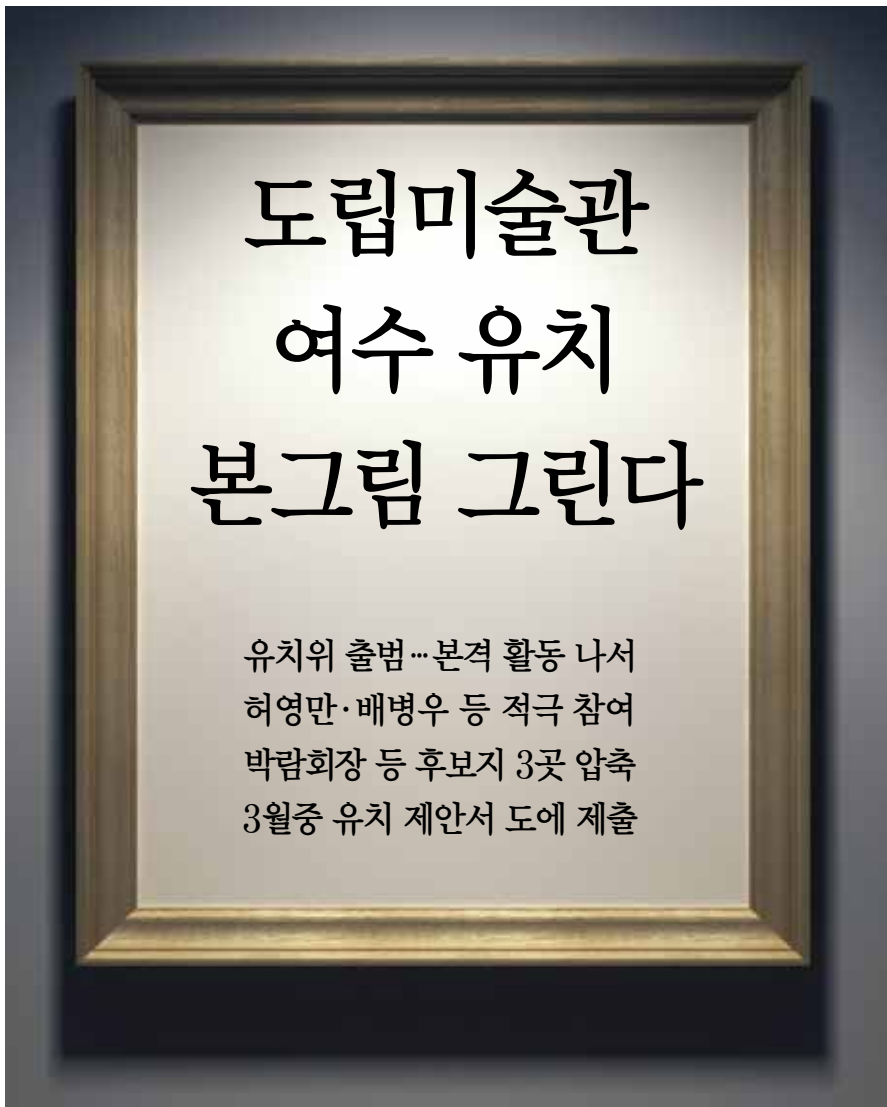
◇도립미술관 유치 작업 탄력=전남도는 건축비와 작품구입비 등 총 300억원을 투입, 오는 2018년까지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후보 도시를 물색하고 있는 전남도는 후보지 결정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오는 7월까지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에 미술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수시 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여수 출신 전제화가 ‘고 손상기 화백 작고 26주기 기념 심포지엄’에서 미술관 건립을 요구하는 국내미술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도립 미술관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높다.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도시 여수가 박람회를 통해 잘 갖춰진 도로·항만·철도 등 기본 SOC(사회간접자본)와 관광인프라, 높아진 도시 이미지 등으로 시·도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들이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유치위 출범... 본격 활동 나서
허영만·배병우 등 적극 참여
박람회장 등 후보지 3곳 압축
3월중 유치 제안서 도에 제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홍용 도립미술관 유치 추진위원장은 “여수가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은 물론 국가사업인 엑스포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립미술관이 들어서야 한다”며 “배동신·손상기 등 지역 대표 작가들의 훌륭한 콘텐츠와 이순신 장군 유적 등이 전남 문화유산과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수에 반드시 도립미술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는 한국 초기 서양화가이자 독립운동가 김홍신(1897~1966), 한국 근대 수채화의 대가 배동신(1920~2008) 등 시대를 풍미한 예술인들이 대거 배출된 전남 대표 문화예술 도시다.

◇여수시 미술관 후보지 물색=도립미

술관 유치를 위한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수시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여수지역에 전남도 산하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도립 미술관 유치를 전개해 갈 방침이다.

인근 순천에는 전남도 직영 순천의료원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사가, 광양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사가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또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미술관 후보지를 마련해 도립 미술관의 품격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우선 여수 세계박람회장내 한화아쿠아플라넷 옆 부지를 유력 후보지로 준비 중이다. KTX 종착역인 여수 엑스포역과 자동차전용도로 확보해 접근성이 뛰어난



옛 KBS방송국 사옥



예술마루와 인접한 장도

복합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정부의 ‘사후활용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지 확보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후보지는 박람회장 인근 옛 KBS 여수방송국 사옥으로 접근성과 원도 심화성과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후보지는 GS칼텍스가 1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문화예술 공연장인 예술마루와 인접한 장도다.

접근성과 경치가 뛰어난 장도의 장점과 국내 최고 공연시설인 예술마루와 연계하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수시는 이처럼 문화예술 관계자 등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3월 유치 제안서를 전남도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도립 미술관이 여수로 최종 결정되면 오동도와 여수 세계박람회장, 해상케이블카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극대화는 물론 전남 관광의 경쟁력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박점숙 교육문화지원사업담당장도 “도립 미술관 건립은 전남의 문화예술 대표 도시 여수의 오랜 숙원인 만큼 시민들의 유치 열기도 매우 뜨겁다”며 “도립 미술관 유치로 전남도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여수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해양공원 인근에 100실 규모 호텔

중저가로 500여명 수용

3월 착공 내년 3월 완공

여수 중앙동 해양공원 인근에 100실 규모를 갖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여수시는 27일 시청 시장실에서 골든비치홀딩스 정재주 대표이사와 오는 3월 착공에 나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인 골든비치홀딩스는 여수시 중앙동 243번지 일원에 120억원을 투자해 지상 5층, 객실 100실 규모의 호텔과 문화·정보 및 교류시설, 근린생활시설(2층),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내년 3월까지 건립한다.

호텔은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객 수용 시설로서 단체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계기로 갖춰진 SOC(사회간접자본)와 뛰어난 해양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용산~여수를 3시간대 오가는 KTX 운행과 순천~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여수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실제 세계박람회 이후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으면서 도시인지도가 부쩍 높아졌다.

또한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빛노리야 축제, 365 섬관광 등을 소재로 ‘여수 밤바다’의 전국적 신드롬을 일으키며 천만 관광객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특급 호텔 등 고급숙박 시설은 크게 확장된데 비해 대규모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어서 이번 호텔 건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단체 수학여행단 및 동계 전지훈련 스포츠 동호인 등 체류형 관광객들을 대거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덕충동 1389일원에 36실 규모의 중저가 숙박시설인 KTX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대규모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대거 확충함으로써 향후 체류형 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해 국제적 관광레저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LG화학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열어

지역 청소년 사랑나눔 계속

LG화학 여수공장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따뜻한 사랑나눔을 계속하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청소년들에게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2015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사진)를 여수하든베이 특급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화학캠프는 아동복지시설 삼해원과 여수 YMCA, 지역아동센터 중화생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화학과 환경’을 주제로 글로벌 나눔과 팀워크 증진, 화학·환경 탐구, 화학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친환경 화학 실험실 프로그램에서 종이컵과 커피 필터를 미니 화분으로 재활용하는 지구를 살리는 화분, 오 염된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설계해보는 마이크로 정수기, 화학첨가제가 섞이지 않은 친환경 폼클렌징 만들기 등 생활속의 화학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했다.

또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제품을 설계·제작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글로벌 시민



교육’ 같은 인성 함양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화학캠프에 800여명의 지역청소년이 참가했다”며 “청소년들이 화학캠프를 통해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 여수공장의 11개 단위 공장 사회봉사단은 지역아동센터와 결연을 맺고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는 ‘지니데이’와 생일축하 파티 등을 통해 따뜻한 사랑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200억 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